

## 크리스마스 성육신의 의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경말씀: 요1:14

요즘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다. 더욱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위기를 몸으로 느끼며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광장에도 가고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분주하게 지낸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확고히 붙잡아야 한다.

1.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단7:13-14)
2.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우주 공간에 전혀 없다(롬8:38-39).
3.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요5:24).
4.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요5:39).

그러므로 오늘은 < >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보려 한다.

### 예수 그리스도

약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처녀에 의해 한 아이가 태어났다.

성경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에서 온 이름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이름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한 것에서 유래한다(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상징한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분의 사역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이며,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어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며, 구약에서 왕, 제사장, 대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연결된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나타낸다. 이 칭호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구속 사역을 강조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단순히 두 단어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성취를 드러내는 이름이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빌립보서 2장 9-11절).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달려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은 단순한 대언자나 도덕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임을 선언한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마16:15-16)

###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이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겸손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그분의 겸손한 탄생만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속죄 사역을 성경대로 믿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한다. 반대로, 그분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3:17-18).

현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성경과 역사 기록들은 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배신행위이다. 이는 영원한

심판을 가져온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보장받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포함한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출발점이다.

### 크리스마스의 의미: 하나님의 성육신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목상하는 날이다. 그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라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의 어떤 날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탄절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점이다.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요한복음 1:14).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구속 사역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 후 메시아 약속(창3:15)

그 뒤의 구약 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사야 등 대언자들이 즐기치게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에 대해 선포하고 대언함

성탄절은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념한다. 구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고,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 될 것임을 정확히 예언했다. 이러한 약속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성탄절이 단순한 문화적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 계획이 드러난 날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안에서 정확한 때에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갈4:4)

그러나 현대인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의 본질을 잊고 있다. 성탄절이 세속화되고 상업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육신의 신비를 목상하기보다는 선물, 장식, 가족 모임과 같은 외적인 행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단순히 즐거움과 휴일로만 여기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구속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목상하지 않고 세속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곤 한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

성경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성탄절을 단순한 축제일로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목상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 성육신의 의미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한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구절의 처음은 영원 전을 말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원성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가지심을 증언한다.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은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낸다. 이는 그분께서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다. “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4:15)

성육신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예언되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하는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 될 것임을 예언하며 동시에 그분의 영원성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야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기원이 없는 분이시다. 개역이나 NIV처럼 기원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린다.

성육신은 단순히 예언의 성취일 뿐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다.

매튜 헨리는 성육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긍휼의 절정”이라고 강조했다.

즉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는 창조자 하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의 주권적 계획의 성취를 나타낸다”.

### 성육신의 필요성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로마서 3:23,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5:12).

이 단절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며, 모든 사람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로마서 6:23). 성육신은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의 심판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용서를 요구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분, 일이 있어야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필요하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중보자가 되셨다(디모데전서 2:4-5).

그런데 이 성육신은 마귀를 놀라게 한 하나님의 신비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실천해 보이셨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구약의 희생 예물 제도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며 죄들을 잠시 덮어 줄 뿐이었다. 죄들의 제거는 오직 죄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만 가능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 값을 치르셨다(히10:12-14).

그러므로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 성육신의 결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육신의 핵심 이유를 설명한다. “.”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죄들을 제거하셨고 자신의 죽음과 매장 후 부활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고전15:3-4).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 시고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준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

막2:17,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겸손

천지의 주인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 필히 자기를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8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본이 된다.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준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결합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교훈은 단순히 구속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상에서는 잘나간다 하면 대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한다.

막10:44-45,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 성육신의 최종 결말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라고 말하며, 성육신의 완전한 결말을 묘사한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성탄절을 맞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 결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의 핵심이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그분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와 성도 모두가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이 세대를 겸손히 섬기다가 주님의 왕국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고 축복한다.